



## 국가경쟁력과 대입계열 교차지원



문 권 배  
삼명대 교무처장

### 교차지원 허용의 명분과 운영 실태

대입계열 교차지원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먼저, 계열 구분은 복잡한 사회에 적응기 위한 고등학교에서의 분화 과정으로 인문, 자연, 예체능계열로 크게 분류된다. 비슷한 예로, 밀가루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뉜다. 가정에서는 중력분으로 수제비, 빵과 과자를 대충 만들 수 있지만, 고급 빵을 만드는 데에는 강력분, 부드러운 과자는 박력분이어야 한다. 상업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용도에 따른 재료의 알맞은 선택은 경쟁력의 기본이다.

대입계열 교차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당시 명분과 현재까지 흘러 온 과정을 살펴보자. 수험생 지원자격을 혁신적으로 완화하는 계열 교차지원 허용은, 복잡한 세상에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주로 세분화 길을 걷는 것과 견주어 볼 때 분명히 상반된 조치이다. 지난 '90년대 중반쯤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 자연계열인 한의대, 의대의 경우 한문 등 인문 성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계에게도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은 상위권 대학들간의 고득점자 유치용이었지만, 교차지원 허용의 명분은 힘을 얻었고 지금까지 많은 자연계열 학과에 확대 적용되어 왔다. 또 한편,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도시 지방대학은 학교 생존의 차원에서 교차지원을 허용하였다. 학생의 지원자격을 대한 대학의 정상적인 원칙과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잠시 입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 위의 대학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입계열 교차지원 허용 건은 위, 아래로부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양상을 띠며 급속하게 전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입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 교차지원 허용은 오로지 계열을 지키는 대학에만 타격을 줬을 뿐, 지원자격을 원칙 없는 완화만을 가져왔다. 2002학년도에는 192개 대학 중 167개 대학에서 인문·자연계 교차지원을, 그 중 70여 개 대학은 예체능계열까지의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수요자 논리에 따른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 조치이며, 또 7차 교

“

현 전형방법 하에서 계열 교차지원 허용은 수리 정보의 특별한 영역을 와해,  
 퇴보시켜 국가발전을 위한 기초와 근본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다.  
 현재의 잘못이 미래에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현재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

육과정에서는 계열 구분이 없어지니 이르긴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포장되어 있다.

계열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대학들의 전형 방법을 들여다보자. 지원자격을 완화해도 전형 방법이 올바르면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능력시험은 인문, 자연, 예체능계열로 나눠 출제 범위와 문제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전형 방법은 해당계열과 관계없는 타계열의 수능 성적과 등급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 계열 교차지원 허용과 현 전형 방법은 합격이 지상 목표인 학생들에게 전공을 갑작스럽게 바꾸도록 유혹한다. 자연계에서 인문계, 자연·인문계에서 예체능계열로 바꾸는 것에는 바람직한 면도 있고, 특히 예체능계는 실기를 상당한 정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교차지원 그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인문, 예체능계 학생들에 의해 정도를 걸어왔던 자연계 학생들이 자연계열에서 부당하게 축출 당한다는 데에 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수리탐구 영역을 피해 일찌감치 인문계열로 몰리고, 또 자연계열 학생이 막판에 인문계 또는 예체능계열로 수능을 치르고 그 점수와 등급으로 자연계열을 잠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누가 어려운 자연계열에 남아 있겠는가. 고등학교의 자연계열 이탈 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6년간 자연계열 수능 지원자는 전체의 45.7%에서 26.9%로 감소하였다. 이 수치 변화가

무엇에 기인하는가? 아무 문제가 없는 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제도 운영이 자연계열 고사시켜

계열 교차지원 허용으로 인해 그 동안 대학의 이공계열은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신입생들이 많아졌고 학사 경고자도 급증하고 있다. 불공정한 제도 때문에 회생당한 확인할 수 없는 자연계 학생들, 손쉽게 계열을 바꿔 입학했지만 학업을 따라갈 수 없어 방황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자연계 교수들은 고뇌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 발전을 위한 교육의 기본 틀이 망가지고 있다고 탄식과 경고를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자원빈국인 나라에서는 창의성과 적재적소 인재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현 상황은 구호 따로, 실행 따로의 길을 걷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따져 보자. 우리 사회는 보이는 껍데기만을 좇고, 규제 완화와 자유를 선호하고, 현재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몇 단계 뒤의 상황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보이는 것, 실용적인 것은 제대로 대우받고 그렇지 못하면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예로, 교차지원이 유행이니 같은 예능계열인 미술, 음악도 실기 교차지원을 허용하자고 누군가가 주장해 보자. 예술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무식한 발상이라 하여 예능계 교

수들의 향의가 빗발칠 것이다. 그러한 교차지원은 실행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과 현 인문, 자연계열 교차지원 허용과의 차이점은 그 쪽이 오로지 보이는 성향이 좀 더 강하다는 것밖에는 없다. 보이는 것들은 어지간해서 망가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인식력 부족으로 인해 쉽게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정보들의 특성으로 조명해 보면

정보마다 장·단점이 있고 특성이 있다. 우리 사회가 각 정보들을 어떻게 다루고 배려하는 지는 입시 정책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수능능력시험에서 언어 정보가 주를 이루는 언어, 외국어 영역은 인문, 자연, 예체능계열이 언제부터인가 같이졌다. 반면 수리 정보가 주를 이루는 수리탐구 I, II는 각 계열간의 출제 범위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열 교차지원 허용과 현 전형 방법은 학생들에게 습득하기 어려운 수리 정보 학문을 피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중요해진 논술, 구술, 면접도 수리보다는 언어, 영상 정보에 더 관계되는 시험이다. 현 입시의 전반적인 운영에는 언어 정보보다 강력한 도구인 수리 정보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특별하지 않다. 계열 교차지원 허용은 정보로 해석할 때,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에서 수리 정보란 강력한 사교의 도구를 보다 약한 언어 정보, 영상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납득키 어려운 발상이 실행에 옮겨지는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마찬가지로이다.

## 수리 정보에 대한 몰이해와 적당주의

사회의 수리 정보에 대한 몰이해와 어려운 학문

을 회피하고픈 학생들 마음에 편승한 계열 교차지원 허용은 수리 정보 관련 학문을 고사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수리 정보 무시와 무력화가 은밀하게 펼쳐지고 있다. 현 입시에서 학생들은 자연계를 지원, 학습하고 자연계로 수능을 보고 자연계열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온갖 유혹과 불이익에 시달려야 한다. 자연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집단임에도 계열 교차지원을 할 때 자연계열의 등급으로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일, 어렵고 범위가 넓어 수리탐구 학습에 시간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언어 영역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원점수에서 변환표준점수로 바뀔 때의 상대적 불이익 등……. 객관적으로 수월한 타 계열에서 고득점하고 훨씬 좋은 등급과 변환표준점수로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어려운 수리 정보와 관련된 학문을 학습함에도 따뜻한 배려와 공정한 경쟁은 커녕 수많은 불이익이 있으니 학생, 학부모가 이제 정도가 아닌 길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국가의 미래는 과학 발전에 달려 있는데 현 상황은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연계열을 철저하게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력분으로 과자, 빵을 계속 만들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상황은 박력분이 인기 없어 박력분 생산 중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자연계열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는 기초학문의 부실,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세운 6개 국가전략분야 중 CT(문화 콘텐츠)는 주로 인문, 사회, 예체분야에 속해 논외로 하고,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기술), ET(환경기술)는 주로 과학기술에 의존하게 된다. 국가전략분야가 세계적 경쟁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법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까

지 수리 정보를 도구로 활용하여 탐구하여야 한다.

## 수리 정보는 국가경쟁력의 기초

국가경쟁력은 과학기술과 창의성이 핵심이고,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리 정보를 근간으로 한 자연계열을 특별히 배려, 육성해야만 한다. 또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적재적소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쟁에는 원칙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유념해야 할 것은 어려워서 학생들이 기피해도 교육에 필요하다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자 논리를 교육에 잘못 적용해 모든 것을 학생의 선택권에 맡길 때 어렵고 힘든 학문은 따돌림당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행될 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해 엄격한 절차 없이 자신이 계열과정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대학에서 계열 교차지원을 계속 허용한다면 어려운 수리 정보 관련 학문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습이 전부가 아니겠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암담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계열 교차지원 허용의 문제점을 동일계열에 약간의 가산점, 타계열에는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수습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수리 정보 입장에서 보면 인문, 예체능계열은 자연계열과 편이하므로 몇 점

의 가감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맹이까지를 파헤칠 수 있는 수리 정보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과학기술과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국가경쟁력과 계열 교차지원

현 전형방법 하에서 계열 교차지원 허용은 수리 정보의 특별한 영역을 위해, 퇴보시켜 국가발전을 위한 기초와 근본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다. 현재의 잘못이 미래에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현재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계열 교차지원은 한 대학이 아닌 국가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금지의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깨닫고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가 합심해서 한 시라도 빨리 계열 교차지원을 금지시켜야 한다. **■**

### 문권배

서울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자연대학원 수학과에서 이학 석사, 경희대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상명대 자연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상명대 교무처장으로 한국수학교육학회 감사, 대한수학회 재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식기반사회임에도 오히려 수학교육이 위기로 치달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학교육의 필요성과 관련된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수학적 사고법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으며, 깨달음을 위한 "우물 밖으로의 초대"를 집필 중이다.

